

물고 물리고... 거세진 네거티브 공방

민주 “安, 5·18 정강정책 삭제 주장·수영선수권지원법 외면”

국민의당 “文 아들 특혜 말 바뀐·선거인 모집 독려는 폄파”

한 달여 남은 대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주말과 휴일인 8, 9일에도 상대 후보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네거티브 공세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 최고위원)은 9일 성명을 내고 “안 후보는 자신이 장담한 신당인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4년 2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서명하지 않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4년 3월 안 후보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정강정책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파문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고 꼬집은 뒤 “안 후

보와 국민의당의 그간 행적을 볼 때 그들이 호남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캠프의 권혁기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모닝당’이 연일 쏟아지는 안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안 후보에 이어 국민의당도 유채이탈식 화법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 측 박광은 공보단장은 전날 안 후보를 겨냥, “사드배치라는 국가 중대현안을 당내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바꾸고도 내가 하면 관철되는 태도”라며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황제경영식 정치야말로 패권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안 후보가 포스코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시절 포스코는 부채비율이 700%에

이르는 부실기업(성진지오택)을 인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카이스트와 서울대 1+1 특혜 채용 의혹도 명쾌하지 않다”고 따졌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제2의 정유라, ‘문유라’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연일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또 문 후보 측의 ‘차떼기’ 공세에 맞서 ‘폼페기’ 의혹으로 맞불을 놔다. 여기에 문 후보의 끝장 토론 거부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후보 간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두환 대변인은 이날 “문 후보가 아들의 취업비리를 말 바꾸기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책임을 고충정보원에 떠넘긴 꼴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이도형 대변은 이날 “한국학원총연합회 인건광역사회는 어

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립이법’ 개정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문건을 보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문 후보는 이 같은 임팩트비리를 전제로 한 폄파기가 더 불어 민주당 측과 사전에 교감을 했는지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전날 “5년간 준비한 것이 고작 네거티브와 국민을 적으로 만들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문 후보 스스로 적폐세력이자 패권세력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쓰아붙였다.

이와함께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안철수’ 검색어에 대한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안철수 조폭, 안철수 차떼기 등의 부정적인 기사가 삽시간에 퍼지고 있던 시점에 ‘문재인 아들 특혜’, ‘문재인 조폭’과 같은 연관검색어는 먹통이 되어 노출되지 않았다”며 “네이버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1등 선거운동원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 ‘용광로 선대위’ 구성 파열음

캠프·당 충돌...자리싸움 논란 확산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외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밖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으로는 선대위 구성을 놓고, 캠프와 당이 충돌하면서 ‘자리싸움’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 후보는 ‘통합 선대위’ 구성을 천명하며 당과의 공조를 통해 지지율 확장에 나섰지만 추미애 대표가 지난 7일 일방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발표함에 대해 문 후보 캠프가 8일 재조정을 공식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종석 선대위 후보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선대위가 되도록 원만한 합의를 해달라는 후보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발표한 과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추미애 대표 측은 윤관석 선대위 공보단장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선대위 인선을 했으며 미세 조정을 얻을 수 있지만 수정은 없다”며 “비서실장 명의의 입장문 발표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

하지만 당 내외에서는 추 대표가 ‘오버’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당사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사들을 자리에 배치했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인사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며, 기존 문 후보 캠프 인사들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아 연속성 차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선대위 구성을 놓고 잡음이 표출되자 송영길 총괄본부장에게 추 상임선대위원장과 원만하게 조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8일 저녁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의 호프집에서 만나 약 35분간 술잔을 기울였다.

문 후보는 이날 견배사를 통해 “안 지사의 통합의 술, 이 시장의 공정의 술, 최 시장의 분권의 술, 이것이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모아야 할 정신”이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위하여”라며 술잔을 부딪쳤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 온 안철수 “5월18일 다시 와 ‘임 행진곡’ 제창하겠다”

목포 신항 등 찾아 지지 호소

“특별법 통과·발포명령자 규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휴일인 9일 후보 선출 뒤 첫 대선 행보로 당내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을 찾아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안 후보의 이날 광주·전남 방문은 지지세 확장과 함께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광주·전남 방문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안 후보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5월18일에 다시 오겠다”면서 “그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 “전두환 회고록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며 “국민의당이 발의한 5·18 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립 5·18 묘지 방문목에도 “진실을 밝히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5월 18일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날 박기순·윤상원 열사, 리영희, 문병란 선생의 묘, 김남주 시인, 이한열 열사, 백남기 농민 묘 등을 참배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교 광주 대교구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 주교께서 말한 사회적 약자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당직자들이 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따뜻하게 안 사회, 지역 균형발전 국가, 인제 대탕평, 남북평화를 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 캠프에 있는 사람도 적인자면 쓰겠다고 대탕평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서 늘어지는 대선 후보 토론회 등을 지적하며 국정철학을 논하는 품위있는 토론회 등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작업현장을 둘러본 뒤 세월호 미수습자가족들과 간담회 등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20여분간 진행된 마공개 면담에서 “우선 9명의 미수습자들이 전부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 번째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세월

호가 깔끔하게 끝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돕고 다시 (이같은 참사가)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고 말했다고 장진영 대변인이 전했다.

안 후보는 이날 유권자들과 인사 등도 최대한 자제하고 세월호 육상 거치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브리핑을 받지 않고 세월호 거치작업 현장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현장을 지켜봤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vs 안철수 ‘초박빙’

갤럽 5자 대결 첫 지지율 조사...문 38%·안 3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4월 첫째 주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문 후보가 38%, 안 후보가 35%를 각각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선출돼 5자 구도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올랐고, 안 후보는 16%포인트 상승했다.

전주에도 9%포인트의 상승 폭을 기록한 안 후보는 2주 만에 지지율을 25%포인트 끌어올렸다.

지역별로는 문 후보가 인천·경기(42%), 광주·전라(52%), 부산·울산·경남(41%)에서 선두를 지켰다. 안 후보는 서울(39%), 대전·세종·충청(42%), 대구·경북(38%)에서 문 후보를 앞섰다. 연령별로는 문 후보가 19~29세(48%), 30대(59%), 40대(48%) 등 40대 이하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인 반면, 안 후보는 50대(48%)와 60대 이상(47%)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준표, 경남도지사직 ‘꿈수 사퇴’

기한 넘겨 보궐선거 무산

야권·시민단체 반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남 지사가 예정대로 사퇴시한인 9일 밤 늦게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대선후보이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운신에 제약이 많았던 홍 후보는 10일부터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원로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회장을 만난 뒤 “오늘 밤에

지사직을 그만두겠다. 오늘 밤에 사표를 내면 (보궐) 선거는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을 넘기기 직전 사퇴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다음날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경남지사 보선을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이에 대해 야권과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임기가 15개월 남은 상황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경남도민의 잠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